

제목

2016. 3. 11 ~ 2017. 1. 5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최대한 적어 보았어요.
차례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3번까지 보는 것을 추천해요.
9번은 길어요.

차례

1. 눈속
2. 웹지도를 내 맘대로 만들고 싶다.
3. 수업실연
4. 해지 일기
5. 즉담형
6. 집단토의
7. 암기는 어려워
8. 합격의 결정적 이유
9. 월별 공부

경기지역 합격자 **정해진**

민생도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한 한해 되길 빌어요~ ^^

1. 논술

민쌤이 5,6월에 논술 기출을 한 개만 침삭해주는 거였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 썼어요. 비록 침삭을 받지는 못했지만 덕분에 논술을 다 써본 거죠~
이때 느낀 것이 '집에서 논술을 쓰면 4~5 시간이 걸린다. 자꾸만 고치게 되는데 고쳐도 발전이 없다' 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논술은 학원에서만 쓰려고 마음 먹었어요. 7, 8, 9월에는 2주에 한 번씩 논술 시간이었는데 주어진 시간에 무조건 썼어요. 모의고사 반에서는 매주 썼고요. 해설 강의 듣고 주신 자료를 꼼꼼히 읽기는 했지만 다시 써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시험을 여러번 봤고 논술은 점수가 꽤 좋게 나왔어요. 19, 18, 17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예상이 되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18.33 이었어요. 유아교사의 역할에서 정작 교수자의 역할을 쓰지 않았고, 역할 갈등의 개념에서 3점을 다 받을 수 있을지~~~했는데 한분의 채점자는 19점을 주셨나봐요.
논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5점 배점이었잖아요. 논술 내용의 배점에 따라 15가지 내용을 쓰면 채점이 되는 거 같아요. 평소 연습한 것과 달라서 감이 없었어요. 앞부분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내용만 쓰다가 여유가 있어서 뒷부분은 좀 더 길게 서술했어요. 논술은 내용 공부를 해야 하는데 사실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키워드를 잘 넣어서 서술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개요도 30분 원고지에 30분 동안 썼어요.

개요도 쓰기는요~

먼저 본론 내용에 들어갈 15가지 키워드를 썼어요.

서론은 문제와 사례를 보고 최근 경향이나 중요성 중에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론에 무엇을 쓸지 썼어요.

결론은 문제에 주어진 첫문장을 쓰거나 이 문장이 전체를 아우르는 문장이 아닌 경우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썼어요. 그리고는 교사의 역할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 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논술 시간 안에 쓰기에요.

최대한 생각해 내서 쓰기와

2. 웹지도를 내 맘대로 만들고 싶다.

웹지도에는 해설서와 지침서 내용의 일부만 들어 있는데 따로 해지를 챙겨 보지 않는 것이 불안 했어요. 그래서 책을 자르고 3공을 뚫었어요.(학원 앞 복사집에서 잘라주고 3공도 뚫어 줘요.) 웹지도 사이에 해지를 넣어서 단권화 시켜 놓고 봤어요. 계획은 한주에 전체 보기 였으나 2주가 걸렸어요.

다음엔 기출의 재구성 책을 가져가서 책을 자르고 3공을 뚫었어요. 기출의 재구성이 좋은데 챙겨 보기 어려워서 웹지도 사이에 끼워서 보고 중복되는 페이지를 뺐어요. 그리고 나면 몇장 안남아요.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핑크색 형광펜으로 박스치고 안 볼 부분은 샤프로 엑스포시 했어요. 기본서 중에서 넣고 싶은 부분은 칼로 잘라서 펀치로 뚫고 끼워 넣었어요.

그 다음주에는 법, 생활 기록부 프린트 등을 넣었어요. 웹지도에 7대 안전 등도 끼워 놓고 일주일 동안 봤어요. 물론 모고 문제와 프린트 등을 써 넣거나 잘라 붙이기도 했어요.

웹지도에서 암기해야 할 것들을 포스트 잇에 써보고 백지 쓰기 하듯 써보고 생각 안나면 보고 다시 써보고 했어요. 포스트 잇을 많이 붙여서 지저분하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서 웹지도를 한권 더 샀어요. 한권은 책상위에 놓고 보고 한권은 들고 다니며 보고 학원 올 때 가지고 와서 봤어요

3. 수업실연

수업실연 스터디는 새벽 시간에 행아웃으로 온라인 스터디를 한 후 낮에 개별적으로 연습한 영상은 밴드에 올렸어요. ‘내가 수업을 이렇게 밖에 못하는구나...’라는 실망감이 컸어요. 민쌤이 “능청스럽게 잘 할 수 있을거 같은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쌤이 같은 조에 수업실연 잘하시는 분을 보고 다 내것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교사가 수업을 잘해야 아이들도 믿고 따르고 그런 아이들의 반응 덕에 부모님들에게도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교사의 기본은 수업이니 발령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수업 실연 때 저는 3번이었는데 앞에 두 분도 뒤에 세분도 수업 실연을 잘 할 것 같은 분들이라서 대진운이 안좋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수업 실연과 수업 나눔 후에 복도에서 옷 입는데 평가관 세분이 모두

고개를 저으시고 표정이~~

점수 많이 깎인 줄 알고 최종 발표까지 불안 했었어요.

수업실연은 -2.67

도입과 전개만 하라는 부분을 눈으로는 보고 염두해 두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구상하다 보니 까먹고 평가까지 했어요. 평소 연습할 때 15분 안에 평가까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민쌤은 평가까지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최대한 풍부하게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 생각엔 15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마이너스를 받지 많을 거 같았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평가까지 꼭 하려고 하다보니 도입과 전개만 하라는 부분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점수를 깎인거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 주의집중을 위해 간단한 노래, 챗트 등을 하는 연습을 했었는데 수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구상을 안했더라고요. 빨리 관련 노래 등을 생각해 봤는데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새반 친구들 모두 모여 주었나요? 서연이는 어제 의자에 앉아서 오늘은 바닥에 앉고 싶다고 했었는데 바닥에 앉아주었네요~ 어제 민철이와 시연이, 하은이가~~” 로 시작 했어요. 이 부분에서도 점수가 깎인거 같아요.

중점을 두어 꼭 넣으려고 한 부분들은요.

- 교사가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존중함을 보여 준다.
- 민주적인 합의 과정
-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여 주려고 했어요.
- 수세기, 글씨로 써주기, 그림으로 그려주기를 꼭 넣으려고 했어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
- 보조교사와 하모니 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음을 언급하려고 했어요.
- 갈등 상황시 또래 지원

전체적인 내용 전개는

0. 민철, 시연, 하은이가 어제 공원에서 강아지를 본 이야기를 나누고
1.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기
2.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 나누기
3. 강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지 생각해 보기
4. 우리가 도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캠페인을 하자는 의견 등을 민주적 합의로 다음 활동 정하기)
5. 캠페인 방법을 준비하고 계획하기

- 구호 정하기
 - 구호 외치는 연습하기
 - 피켓 문구 정하기 (글씨와 그림으로 써주기)
 - 문구를 인쇄해 달라는 유아 의견 반영하기
 - 모둠별로 피켓 꾸미기
 - 협력 모듬은 서로 역할을 나누어 꾸미고 있음 (격려하기)
 - 배려 모듬은 도움이 필요한 유아가 있고 다른 유아가 돕고 싶다고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동의 하는지 의견을 구함
 - 존중 모듬은 자기 주장을 하는 유아가 있음
- (자기주장을 하는 유아 때문에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물어보고,
자기 주장을 하는 유아의 생각을 물어보고,
다른 유아들의 생각들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하던 유아가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고 설정함, 변화된 생각 들어보기,
이때 평가관들의 눈을 보며 “고은이는 무엇이 불편했니?”, “수호야 왜 그렇게 생각했니?”, “수진이는 이런 생각을 해주었구나”

복도에서 옷 입으면서 보였는데 평가관들이 목이 아프다고 하신 것으로 봐서 유아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1 되었을거 같아요.)

- 모듬별 재료 도우미가 재료 갖다 주고 정리 도우미가 정리하고
 - 모여서 발표 도우미가 모듬활동 나와서 소개하고
 - 느낌 어떤지, 칭찬해 주고 싶은 친구 있는지 등 이야기
 - 보조 선생님과 하모니 선생님과 함께 감을 언급함
-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유아이름이나 하려던 말이 빨리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아의 의견을 듣는 척 하고 “아~ 그래~ 서연이는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 캠페인을 한 것처럼 동물을 보호 하자는 캠페인을 하자고 하는구나~” 했어요.
유아의 캐릭터도 미리 생각해 두었어요.
과체중 진호
자기주장이 강한 경민이
친구를 때리는 수호
다른 친구를 잘 돕는 규민이
수줍은 윤지
똥똥한 서연이

예민한 수민이

엉뚱한 생각을 잘하는 재후... 등

하이패스 책에서처럼 앉는 자리 배치고 생각했어요.

이번 시험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경민이가 아닌 수호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4. 해지 읽기

해지는 기본도 보고 더 요약된 것으로도 보고 이리 저리 보았어요. 같이 공부하는 분이 해지를 7차례 개정 하셔서 뽑아다 주셔서 감탄 하며 봤어요. 해지는 내용과 내용범주, 세부 내용을 보고 3, 4, 5세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보고 교사의 역할을 보았어요. 유의점은 마지막에 보기도 하고 먼저 보기도 했어요. 저는 3, 4, 5세 연령별 활동 예시를 눈여겨 보았는데 활동을 봐야 연령에 따른 차이 파악이 명확해 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조직화 자료도 보았어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한줄 한줄 분석해서 책 귀퉁이에 요약하며 보았어요.

5. 즉답형

학원 참삭때 즉답형을 말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즉답형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때 생각해 놓은 것이 즉답뿐 아니라 수업 나눔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구상형을 연습해 보니 2분에 5~6문장을 말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1분 = 3문장)

1. 즉답형에서 묻는 문제에 대해 말한 후 (유아교육에서 ~~~ 중요합니다.)
 2.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한 후에
 3.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를 말하려고 했어요.

6. 집단 토의는 학원에서 해보고 평일에는 보이스 톡으로 3번 했어요. 1차 발표 후 4번 했고요.

집단 토의는 주제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연습 때 발언을 많이 해서 시험

때는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조원들이 주제를 벗어나서 다시 끌어 오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저도 그냥 그분들과 비슷하게 했어요. 아는 것을 다 말하려고 하기 보다는 흐름에 따라 한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했어요. 하나씩 점수를 탄다는 마음으로요. 집단 토의는 협력과 배려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자리 배치가 달라져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수험생이 먼저 입실해서 자리에 앉아있다가, 구상 시간에 구상하고, 구상지 덮어 놓고 기다리면 평가관 세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때 저는 고개만 숙여 인사했고요. 마치고 나올 때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저만 인사하고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깜박 하셨는지 인사 안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세분이 인사 하나 안하나 나가는 모습을 무척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인사 잊지 마세요!! (민쌤이 나갈 때 태도를 자세히 본다고 인사 잘하고 밝게 웃고 잘 못한거 같고 속상하더라도 티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7. 암기는 어려워

고시문과 세부 내용은 누리과정 시작부터 진도에 맞춰 외웠어요.

예를 들어 의사소통 영역을 2주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면 2주동안 의사소통 영역을 외웠어요.

처음에는 문장으로 여러번 읽고 문장을 말하며 쓰기

다음엔 단어별로 생각해 보며 쓰기

다음엔 문장을 다섯 번씩 쓰기를 했어요.

매일 한 영역씩 쓰기를 했고요.

빈칸 채워넣기를 했어요.

녹음 해서 틈날 때 듣기를 했어요.

이때 오후에 졸릴 때 녹음 했는데 처음엔 한 영역씩 녹음 하고

다음엔 한 문장을 3번씩 읽으며 녹음하고

다음엔 고시문에서 세부 전체까지 한번에 녹음했어요.

빈칸 쓰기와 백지 쓰기를 번갈아 가며 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침 저녁으로 회상 후 눈으로 읽기를 했어요.

저는 고시 세부 암기는 유아 임용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암기 못해서 틀리면

시험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시험에서 말도 안되게 쉬운 것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부끄러워 생각도 하기 싫은 것들을 여러개 틀렸어요. 그래서 합격 못할 줄 알았어요.

암기는 너무 어렵고 정말 생각이 안나서 힘들었어요.

내 이름 물어 봤을 때 말하는 것처럼 자동화 되도록 외워야 해요.

8. 제 합격의 결정적 이유

바로 민쌤 강의 + 학원에서 강의 함께 듣는 분들
소중한 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9. 월별 공부

3월 ..

민쌤 인강을 연간 패키지로 신청하고 개론을 들었어요.

카페에 보니 초수이신 분들은 개론을 들은 후에 누리과정을 들으라는 상담 내용을 보고 개론 강의 들었어요.

이때 공부 시간이 새벽 5시 ~ 8:30 까지 + 야기 낮잠시간 1시간 정도 였어요.
그래서 예습은 못하고 한가지 주제를 강의 듣고 해당하는 2~3쪽 정도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웹지도를 인쇄해서 해당 페이지에 붙이고 요약된 것으로도 읽어 보았어요.

4월..

4월 중순까지 개론 강의를 다 듣고 모고를 풀어 봤는데 많이 틀려서 엄청 충격이였어요. 원래는 학원에 우편으로 답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보냈어요. 이때 받은 맞고 받은 틀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리과정 강의 들었어요. 그런데 개론을 다 잊어버릴거 같고 머릿속에 정리도 안되고 해서 민쌤 카페에 스터디를 모집해서 개론서 조금씩 읽고 밴드에 인증하기를 했어요. 저는 수험서는 7회독 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읽지는 못했어요. 누리과정 강의 듣기에도 바빠서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누리과정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개론서 다시 보기는 추천하지 않아요. 누리 과정

예습 복습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누리 과정 진도에 맞춰서 고시문과 세부 내용을 외웠어요.

5월..

민쌤이 지도서를 여름 전에 봐두라고 하셔서 민쌤 카페에 스터디를 모집하고 각자 지도서 읽고 밴드에 인증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민쌤 카페에 스터디 모집 하는거 아닌거 같은데 뭘 몰라서 그랬었네요;;) 11주 동안 한주에 한권씩 보기로 했는데 다섯권인가 여섯권 읽고 다 하지는 못했어요. 지도서를 볼 때 이 활동 앞에는 어떤 활동을 했을지 생각해 보고, 목표와 자료를 보고 어떤 활동일지 상상해 보고, 창의 인성 내용을 보고 적합한 발문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내용을 읽어 보았어요.

그리고 3,4월에 계속 체하고 설사하고를 반복하고 배가 많이 아파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이상 없고 스트레스성인거 같다고 했어요. 엄청 많이 아파서 신랑 휴가까지 내라고 하고 힘들게 검사까지 한거였어요. 여러분은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래요~

6월..

직장은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저는 인강으로 듣고 있어서 강의를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민쌤에게 상담을 했어요. 인강이라 인쇄하는데 오래 걸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적어서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강의 내용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앞으로 조금 돌려서 다시 듣고 하다 보니 50분 강의를 두시간 동안 듣고 그러고 있다고 했어요.

민쌤이 학원에 잠깐 오라고 만나자고 하셔서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겨 놓고 오전에 잠깐 가서 민쌤을 만났어요. 이때 논술 기출을 써 가지고 갔어요. 한 개만 첨삭해주는 거였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 썼어요. 비록 첨삭을 받지는 못했지만 덕분에 논술을 다 써본 거죠~

이때 느낀 것이 집에서 논술을 쓰면 4~5 시간이 걸린다. 자꾸만 고치게 되는데 고쳐도 발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논술은 학원에서만 쓰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해서 공부시간을 늘렸어요.

그런데 작은 애가 수족구에 걸리더니 다음주에는 큰애도 수족구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갔어요. 아이들이 아픈 2주 동안 공부하기 어려웠어요.

7월..

직장을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개론서 읽기 스터디와 지도서 읽기 스터디를 함께 한 두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 육아병행이라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웹지도반은 예습과 복습을 했어요. 예습은 민쌤 기본서를 읽고 웹지도를 보고 외웠어요. 민쌤은 기본서를 다시 보는 것을 추천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3,4,5,6월에 예습복습을 잘 못해서 기본서도 보았어요. 이때 프린트 물을 해당 페이지에 붙여서 봤어요. 장학 자료도 꼼꼼히 보려고 노력 했고요. 기본서는 모의고사 볼 때도 가끔씩 찾아서 봤어요. 저는 장학 자료도 중요 하다고 생각해요.

수업을 듣고 나서는 기출변형문제와 기본 문제를 다시 보고 웹지도와 기본서를 찾아봤어요. 개론은 기출 변형 문제를 눈여겨 본다면 누리과정은 어디에서든 다 나올 수 있으니 기본 문제도 눈여겨 보는 것이 좋겠어요.

기출의 재구성은 유아 임용 수험서 중 TOP

진도에 따라 기출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 보았어요.

가장 좋아하는 책인데 더 많이 못 본 것이 아쉬웠어요.

기출책 꼼꼼히 많이 보시길 추천해요~

8월..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힘들고 너무 더워서 힘들고 기출 변형문제 등을 많이 틀려서 괴로웠어요. 큰애는 밥만 챙겨주면 학원 다녀오고 팬찮은데 작은애가 힘들었네요. 지난 여름이 엄청 더워서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집중을 못한다고 잠을 잘 자야 한다고 하셔서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낮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좋았어요. 하지만 공부 시간이 부족한 저로써는 새벽 시간 없이는 안되었어요. 예습과 복습을 다 못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새벽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시 일찍 일어나는 습관 잡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5시에 일어나려고 한 이유는 아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기도 하고 시험 보러 가려면 5시에 일어나야 해서 습관을 만들려는 것도 있었어요. 3주는 늦게까지 잤어요.

민쌤도 마음이 힘들어 보였는데 위로하고 싶은데... ;; 제가 더 힘들어서

하소연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민쌤이 우리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자고 해주셨어요. 전부터 민쌤 좋아했지만 이때부터는 거의 절대적 존재가 되었어요. 온 마음으로 의지 했어요.

이때 학원에서는 기출변형 문제를 풀고 기본문제를 집에서 풀어 오기로 했는데 저는 집에서는 풀 자신이 없어서 학원에 남아서 풀고 왔어요. 저는 토요일에는 6시에 일어나서 8시쯤 학원 앞에 와서 밥을 먹고 8:30쯤 학원에 와서 문 열어 주시면 들어와서 공부했어요. 매끼를 제가 해먹어야 하는데 토요일에는 세끼를 고시식당에서 사먹어서 참 좋았어요. 학원 끝나고 확인문제 풀다가 저녁 먹고 9시에 학원 문 닫을 때 집에 왔어요.

9월..

며느리의 적 추석명절이 있었어요. 임고 카페에 있는 녹음 파일을 샅아서 공부할 수 없을 때 들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졸릴 때 고시문이나 세부내용 등을 녹음하고 학원 오갈 때 들었어요.

민쌤은 혼자 읽어봐도 되는 내용은 각자 읽기로 하고 강의를 안하시는데 이 부분도 꼼꼼히 보시고 어려운 부분을 다른 분들에게 물어도 보고 하시면 좋겠어요. 정 모르는 부분은 민쌤에게도 물어보시고요. 저는 예전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긴 했는데 혼자서 읽기가 어려웠어요. 2차까지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왜 그 부분은 혼자 공부 하라고 하시냐고 민쌤에게 물어 봤었어요. 혼자 봐도 되는 부분이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어서 그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터디를 하시거나 혼자 꼼꼼히 보시면서 잘 준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웹지도반 모고를 보았는데 성적이 낮아서 괴로워했어요. 이때 민쌤이 이건 진짜 시험이 아니고 강사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 모의고사반에서 성적이 낮아도 이때보다는 덜 힘들었어요.

10월..

웹지도에는 해설서와 지침서 내용의 일부만 들어 있는데 따로 해지를 챙겨 보지 않는 것이 불안 했어요. 그래서 책을 자르고 3공을 뚫었어요.(학원 앞 복사집에서 잘라주고 3공도 뚫어 줘요.) 웹지도 사이에 해지를 넣어서 단권화 시켜 놓고 봤어요. 계획은 한주에 전체 보기 였으나 2주가 걸렸어요.

다음엔 기출의 재구성 책을 가져가서 책을 자르고 3공을 뚫었어요. 기출의 재구성이 좋은데 챙겨 보기 어려워서 웹지도 사이에 끼워서 보고 중복되는 페이지를 뺐어요. 그리고 나면 몇장 안남아요.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핑크색

형광펜으로 박스치고 안 볼 부분은 샤프로 엑스포시 했어요. 기본서 중에서 넣고 싶은 부분은 칼로 잘라서 편치로 뚫고 끼워 넣었어요. 그 다음주에는 법, 생활 기록부 프린트 등을 넣었어요. 웹지도에 7대 안전 등도 끼워 놓고 일주일 동안 봤어요. 물론 모고 문제와 프린트 등을 써 넣거나 잘라 붙이기도 했어요. 웹지도에서 암기해야 할 것들을 포스트 잇에 써보고 백지 쓰기 하듯 써보고 생각 안나면 보고 다시 써보고 했어요. 포스트 잇을 만이 붙여서 지저분하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서 웹지도를 한권 더 샀어요. 한권은 책상위에 놓고 보고 한권은 들고 다니며 보고 학원 올 때 가지고 와서 봤어요.

해지는 기본도 보고 더 요약된 것으로도 보고 이리 저리 보았어요. 해지는 내용과 내용범주, 세부 내용을 보고 3, 4, 5세에 따라 다른 지도 방법을 보고 교사의 역할을 보았어요. 유의점은 마지막에 보기도 하고 먼저 보기도 했어요. 저는 3, 4, 5세 연령별 활동 예시를 눈여겨 보았는데 활동을 봐야 연령에 따른 차이 파악이 명확해 지더라고요.

시골에 혼자 사시는 친정 엄마가 허리뼈가 부러져서 이때 멘붕이었어요. 오빠들은 있는데 딸이 하나라서 엄마를 도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힘들었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가장 마음이 힘든 일이었어요.

11월..

다른 분들은 여러 모고를 풀어 보기도 하는데 저는 공부시간이 적어서 모고를 풀면 기본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고도 풀어 보고 개인 공부도 충실히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공통의 관심사가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것도 외로웠고요. 이때 저와 공부 방향이 비슷한 분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공부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며 서로 격려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참고 했어요. 예전에 다른 학원에 다닐때는 제가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하고 그랬는데 민쌤 직장생들은 서로 자기 공부 방법 얘기도 해주고 모르는 것 물어보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육아 때문에 공부 시간이 적다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며 자신이 요약한 자료를 보여 주기도 하고 세부 암기를 빨리 하는 방법도 알려 주셨어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든 과정들을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모고 성적은 중간 이하였어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하고 잘하셨다고 “더 성적 올리세요~ 저도 뒤를 따라 갈게요.” 그랬네요. 또 다음 주에는 중간 이상이 되겠다고 목표를 말하기도 했어요. 중간 이상이 되기까지는 몇주가 걸렸지만 조금의 진보일지라도 기뻐하고 위안을 삼았던거 같아요. 올해

성적을 올려 봐야 내년엔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었어요. 또 우리 학원 수강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아침에 오면 시험 당일처럼 고시문과 세부를 보고 시험을 본 후에는 점심 먹고, 채점 하고, 해설 강의 듣고, 남아서 모든 문제를 책에서 찾아 보았어요. 책에서 찾아서 다시 보면서 다르게 문제가 난다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틀린 문제는 오개념이 풀릴때까지 이분 저분에게 물어 보았어요. 웹지도에 체크하고 메모도 했어요. 아는 것 같은데 틀린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음엔 틀리지 않으려고 꼼꼼히 공부하려고 했어요. 민쌤이 첨삭해 주신 답지를 받으면 다시 모든 문제를 다시 보고 서술형은 답지에 수정해서 써보았어요. 집에 오면서도 보고 집에 와서 씻고 조금 쉬었다가 아이들 재우고도 내가 왜 틀렸을까 펴보고 또 보고 했어요. (아이가 아파서 일찍 집에 온 한주만 빼고) 모고 분석은 토요일에 마치고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쉬고 주중에 웹지도 공부에 집중했어요. 마지막 주에는 민쌤이 주신 키워드 정리를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시문과 세부를 회상하고 아침 먹고 아이들을 보내고 개론파트, 각론파트를 보고, 아이들이 오면 잠깐 쉬고 간식 먹고 집안일 하고, 놀아 주다가 저녁 먹고 나서 고시문과 세부를 한번 더 본 후에 잤어요.

12월..

1차 시험이 끝난 후 바로 2차 준비를 시작하고 싶었으나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시험이 쉬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실수가 많았던터라 저는 이번에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을 위해서 2차 준비를 해두자는 마음이었어요.

민쌤 강의 시작 전까지 스터디 쌤들과 자료와 지도서를 보고 그렸어요. 민쌤이 추천해 주신 박은혜 선생님의 유아 교사론도 읽었고요. 생활지도 등의 자료 봤고요. 경기도 교육에 관한 인쇄물도 읽고 녹음해서 암기하려고 했어요.(경기교육의 이해, 중점 교육 정책, 경기 유아 교육 이렇게 실천합니다. 등)

민쌤 강의 중 인강으로 수강해야 하는 부분은 여러번 들었어요. 또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 강의를 전사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민쌤이 하시는 말들을 글로 적어서 보니 민쌤이 활동별로 강조하시는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므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학원 가는 날이 좋았는데 2차 준비할때는 집에 있어도 학원에 가도 새벽에 일어나도 잠을 많이 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해야

하는데 안하고 싶고 ~~

큰애가 독감에 걸리더니 다음주에는 신랑이 걸려서 아픈 신랑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학원에 와야하니 괴로웠어요. 저와 아기는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몸살처럼 앓고 지나갔어요.

민쌤 직장가기 이를 전부터 준비해서 학원에 갔고 학원에서 하루종일 공부하다가 마지막 조로 개별 첨삭을 받았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었는데 시험 당일날 마지막 번호로 시험 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 하며 인내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쌤이 제게 해주신 말씀은

1. 수업실연 할 때 속삭이듯 말한다.
 2. 자세가 구부정하다.
 3. 약해 보이면 안된다. 경기도는 약한 교사를 뽑지 않는다.
- 였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허리와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고 평소 보다 약간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려고 했어요. 약해 보이면 안된다는 어떻게 개선 할지 고민하다가 옷을 바꾸었어요. (민쌤 의도는 그런게 아니겠지만 이미지를 바꾸어 보려고 했어요.) 첫주에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원피스 대신 안에 옷을 여러개 입고 기본 정장을 입었어요. 외소해 보이지 않으려고 가는 목을 가리는 목티도 입었고요. 민쌤이 좋다고 하셨고 시험장에 이렇게 입고 갔어요.

수업실연 스터디는 새벽 시간에 행아웃으로 온라인 스터디를 한 후 낮에 개별적으로 연습한 영상은 밴드에 올렸어요. 내가 수업을 이렇게 밖에 못하는구나... 라는 실망감이 컸어요. 민쌤이 “능청스럽게 잘 할 수 있을거 같은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조에 수업실연 잘하시는 분을 보고 다 내것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교사가 수업을 잘해야 아이들도 믿고 따르고 그런 아이들의 반응 덕에 부모님들에게도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교사의 기본은 수업이니 발령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학원 첨삭때 즉답형을 말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즉답형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때 생각해 놓은 것이 즉답뿐 아니라 수업 나눔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구상형을 연습해 보니 2분에 5~6문장을 말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1분 = 3문장)

1. 즉답형에서 묻는 문제에 대해 말한 후 (유아교육에서 ~~~ 중요합니다.)
2.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한 후에
3.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를 말하려고 했어요.

수업 나눔은 10분 동안 3문제를 즉답처럼 주시는데 면접관이 읽어 주시더라고요. 한 문제당 9문장을 말하면 3분씩 9분이 될거라고 생각했어요. 9문장은 질문에 대해 3가지를 말하고 이 3가지를 3문장으로 말한다는 전략을 세웠어요. 수업 나눔은 내 수업실연을 돋보이게 만들 기회!

집단 토의는 학원에서 해보고 평일에는 보이스 톡으로 3번 했어요. 1차 발표 후 4번 했어요.

집단 토의는 주제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연습 때 발언을 많이 해서 시험 때는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조원들이 주제를 벗어나서 다시 끌어 오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저도 그냥 그분들과 비슷하게 했어요. 아는 것을 다 말하려고 하기 보다는 흐름에 따라 한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했어요. 하나씩 점수를 탄다는 마음으로요. 집단 토의는 협력과 배려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자리 배치가 달라져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수험생이 먼저 입실해서 자리에 앉아있다가, 구상 시간에 구상하고, 구상지 덮어 놓고 기다리면 평가관 세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때 저는 고개만 숙여 인사했고요. 마치고 나올 때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저만 인사하고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깜박 하셨는지 인사 안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세분이 인사 하나 안하나 나가는 모습을 무척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인사 잊지 마세요!! (민쌤이 나갈 때 태도를 자세히 본다고 인사 잘하고 밝게 웃고 잘 못한거 같고 속상하더라도 티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1차 발표 후에 첫주는 자기 소개서를 쓰고 두 번째 주에는 면접과 수업실연을 연습했어요.

자기 소개서는 제가 시험실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들이 제꺼를 읽고 계셨어요. 아주 밝게 웃으시며 고개를 마구 끄덕이며 흐뭇하게 보시고 계셨어요. 제 생각에는 줄을 많이 띄고 읽기 편하게 간단하게 써서 그런거 같아요. 저는 자기 소개서 쓸 때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경험한 일은 썼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들이라서 어떻게 물어봐도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이야기만 썼어요.

저에게 한 질문은 “학생 중심으로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도 선생님>을 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한 아이가 자기가 진짜 선생님인양 다른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이었던거 같아요.

1차 합격 후 스터디는 아이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주말에만 했어요. 24일, 25일, 31일, 1일 이렇게 4일 동안 하고 주중에는 지도서 읽고, 민샘 자료 중 활동 전개 순서를 반복해서 보고 어떻게 수업 할지 구상해 보았어요.

1월..

시험 전날은 청소를 했어요. 1차 시험은 토요일이라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갔었는데 2차 시험은 평일이고 신랑이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동네에 친한 아기 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기가 기어다니는 아이고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신랑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고, 아기 엄마가 하원차에 내려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제가 마음 편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시험 보는데 신경 쓰이지 않고 좋았어요. 육아 병행 하는 수험생이시라면 어디에 맡길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